

SSA 투자자 유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美) 달러화 표시 외평채 발행 공식화

- 금년도 5년 만기 달러채(13억불 한도) 발행을 위한 계획 발표 -
- 런던 투자자 설명회 개최 등 3년만의 미(美) 달러화 표시 외평채 발행 준비에 만전 -

정부는 6.14(금) 17:00,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을 위한 대행기관* 선정 및 발행계획(mandate announcement**)을 발표함으로써 금년도 외평채 발행을 공식화하였다.

* KDB 산업은행, BofA, Citi, Credit Agricole, HSBC 등 투자은행 5개사

** 이른 시일(통상 2~3주 이내) 내에 채권을 발행하겠다는 공식적인 발표

이번 발행은 지난 2021년 이후 3년 만의 미(美) 달러화 채권 발행으로, 그간 중단되었던 채권 발행을 다시 이어감으로써 ‘정기적인 채권 발행자(Regular Issuer)’의 지위를 확립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외평채에 대한 수요가 지속 창출되면서 필요시 언제든지 활용 가능한 정부의 외화 조달 창구가 확보될 것이며,

최근 외화 채권을 활발히 발행*하고 있는 국내기업·금융기관이 보다 낮은 금리로 외화를 조달할 수 있도록 준거금리(벤치마크)를 제공하는 외평채 본연의 기능을 다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 1~5월 국내 외화채 발행량(억불) : ('21) 227 ('22) 235 ('23) 247 ('24) **253** <역대 최대>

또한, 금번 발행 시에는 선진화된 발행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각국 정부 및 중앙은행, 국제기구, 정책금융기관 등 우량한 SSA(Sovereigns, Supranationals & Agencies) 투자자를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 정부 등 ①SSA 기관이 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처음부터 목표 금리를 명확히 제시하여 안정적 투자를 중시하는 ②SSA 투자자가 선호 → 주된 ①발행자/②투자자 모두 SSA인 특성

SSA 투자자 종류별 구성 (예)

① Sovereigns	중앙정부, 지방정부, 중앙은행, 국부펀드, 연기금 등
② Supranationals	국제기구 등 초국가적기관
③ Agencies	정책금융기관, 공공기관 등

이러한 SSA 중심 발행을 통해 첫째, 기존 아시아/자산운용사에 편중되어 있던 투자자 저변을 유럽·영미권/SSA 우량 투자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자본 조달 루트를 다변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중장기적으로는 금번 외평채 투자를 계기로 글로벌 우량투자자들의 관심이 국내기관 채권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우량 투자자 유치를 통해 높아진 위상은 향후 외평채를 보다 낮은 금리로 발행(채권 가격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며, 투자 수익을 위한 잦은 거래보다는 장기간 보유를 선호하는 SSA 투자자들의 특성상 발행 이후 시장에서 유통되는 외평채 금리의 안정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외평채가 다른 국내기관 채권 투자수요를 흡수하는 소위 ‘구축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도 의미있는 변화이다. 정부 및 국내 정책금융기관이 SSA라는 새로운 투자자군을 개척하면서, 외평채를 구매해온 SSA 외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 여력이 확대될 전망이며, 이를 통해 국내기관들이 보다 손쉽게 외화자금을 조달할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올해 외평채 발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자 대상 홍보 등 발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

발행에 앞서 SSA 투자자들이 다수 상주하고 있는 런던 지역 대면 투자자 설명회(로드쇼)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어 아시아/미주 등 전세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투자자 콜(GIC, Global Investor Call)’도 추진하는 한편, 시장참여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제금융시장 및 채권발행 시장 동향도 일일 단위로 면밀히 점검(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책임자	과 장	유창연 (044-215-4710)
		담당자	사무관	홍승균 (hsgyun@korea.kr)
			사무관	윤현곤 (gonnnn@korea.kr)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